

무안군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최적지 부상

郡 무안국제공항 일원 용역 진행

산업용지 150% 초과 수요 확보

RE100 구현 인프라·공급 체계도

전남의 산업 지도가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무안군이 'RE100을 현실화할 가장 완벽한 입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12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일원 347만1천㎡ 부지에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총사업비 7천200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산업용지(209만 4천㎡) 기준 150%를 초과하는 압도적인 기업 유치 수요를 확보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이미 입증하고 있다.

주요 유치 업종은 전기장비와 금속가공, 전자 부품,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25개 업종과 에너지, 물류, 정보통신, 연구개발(R&D) 등 미래산

업 분야를 아우른다.

무안 국가산단의 가장 큰 경쟁력은 RE100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에너지 인프라와 혁신적인 공급 체계에 있다.

산단 내부 공장 지붕과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클라우드 방식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운영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남 지역의 해상·육상풍력과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해 입

주 기업에 맞춤형 RE100 전력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345kV 신무안 변전소 건설사업과 연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인근에 이미 운영 중이거나 허가 진행 중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변전소가 위치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2031년 준공 예정인 신안 해상풍력 32GW 단지와의 연계도 가능하다.

이처럼 무안군은 '공항·철도·부지·정주여건·에너지 인프라'라는 RE100 5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군은 단순히 산단 유치를 넘어 에너지 자립형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무안형 RE100 산업벨트'를 구상 중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공항 배후 물류 산단과 농생명·바이오 융합단지, 청년창업 및 R&D 허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미래 산업 전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무안이 서남권 RE100 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제7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영광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태양광 발전단지 성과 ‘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솔라리그 지자체 부문

영광군이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주민이 함께 하는 재생에너지 혁신모델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경기 화성 정조효공원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지자체 보급성과 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과 정책 성과를 겨루는 전국 단위 경진대회로, 올해는 200여개 지자체·기관이 참가했다.

이번 수상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자립률 104% 달성 ▲군민 참여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발전 이익을 군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공유와 기금 조례 제정 ▲읍면별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등 혁신적인 정책 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염산면 월평마을의 3MW급 전국 최대 규모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는 주민이 56%의 지분을 소유해 마을 28가구에 발전 수익을 배분하는 '농촌형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로, 주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 생산과 이익 공유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수상은 주민과 행정의 협력해 이룬 참여와 공유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군도형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영광=김동규 기자

강진군 ‘옥시페탈륨’ 화훼 소득원 주목

노동력 절감·소득 안정 기대

프리미엄 시장 틈새 품종 각광

강진군이 새롭게 도입한 화훼작물 '옥시페탈륨(사진)'이 높은 생육 적응력과 경제성을 보이며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3농가를 대상으로 각 600㎡ 규모의 시범 재배를 추진했으며, 2회 수확에서 3.3㎡당 약 6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옥시페탈륨은 청색과 흰색 두 품종이 도입됐으며, 독특한 색감과 긴 절화 수명 덕분에 웨딩, 인테리어, 행사 장식용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높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훼시장에서



회소가치가 높은 틈새 작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작물의 큰 장점은 한 번 도종을 심으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반복 수확이 가능한 다년생 절화 작물로, 연간 최대 3회까지 수확할 수 있다.

또한 생육 속도가 빠르고 여름철 고온기에도 강해 연중 출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꽃시장의 유행과 수요변동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장기재배 시 일부 퇴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작물을 찾던 중 옥시페탈륨을 시범 도입했다"며 "시장 반응과 품종 연구 결과를 반영해 지역 화훼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암군 교동사랑방 새단장…내년 9월 준공

국교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영암군은 12일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회원과 교동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읍 '교동사랑방'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동사랑방 건립은 2022년 국토교통부의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영암읍 구도심의 주거환경 노후화와 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다.

총사업비 23억5천만원이 투입돼 지상 2층, 연면적 488.91㎡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완공 후에는 마을회관 기능을 비롯해 건강관리소, 공유부엌, 향교학당, 족욕 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 문화·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교동사랑방은 주민이 머물고 소통하며 마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도시 재생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다동이 가정에 보내준 온정에 감사합니다”

세쌍둥이 출산 김재승·천진이 부부

정현택 대창식품 대표에 감사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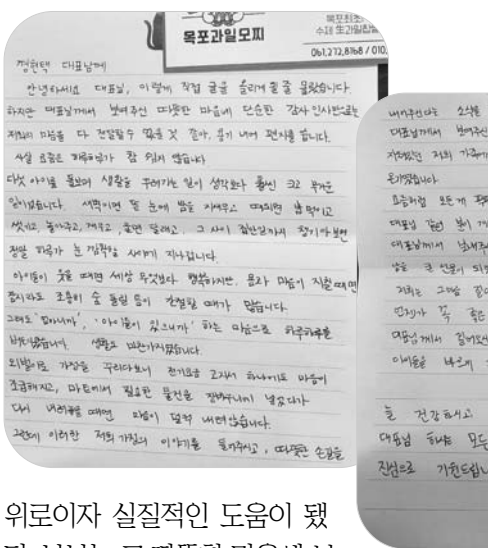
1천만원 후원…목포지역 나눔 확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세쌍둥이를 키우는 목포의 한 부부가 도움을 준 기업인에게 직접 감사의 편지(사진)를 전한 소식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주)대창식품 정현택 대표이사는 최근 세쌍둥이를 출산해 다섯 자녀를 양육 중인 김재승·천진이 부부에게 1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해당 부부는 다섯 아이를 돌보며 생계를 꾸려가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돌본 뒤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고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가다 보니 전기요금과 지저한 장, 마트에서 생필품을 살 때마다 지출을 계산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됐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의 후원은 부부에게 큰



위로이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부부는 그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직접 편지를 써 정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부는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마음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지켜 있던 저희 가족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신 은기였다"며 "요즘처럼 마음이 매달라가는 세상에서 대표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고 적었다.

이어 "언젠가 꼭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

릴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가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난 10일 목포시, 목포한사랑방원, 목포상공회의소 등은 다동이 가정을 돕기 위한 '세쌍둥이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정현택 대창식품 대표이사는 "기업의 역할은 단순한 이윤 창출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2016년 '아너소사이터'에 가입해 1억원 이상을 기부하며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대창식품 역시 지난해 명문기업으로 선정돼 아동센터·복지시설·다문화 가정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목포=정혜선 기자

나주역세권 교통·비즈니스 허브 육성 ‘본격화’

송월동 6만6천㎡…복합개발 추진

교통·숙박·상업·컨벤션 등 5대 기능

혁신도시-원도심 연결 성장축 마련

나주시가 KTX 나주역 일대를 서남권 대표 교통·관광·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는 '나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송월동 KTX 나주역 인근 6만6천㎡(약 2만평) 규모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성장축을 마련하고 미래형 복합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핵심 구성은 ▲교통환승존 ▲상업존 ▲문화존 ▲숙박존 ▲컨벤션존 등 5대 기능으로 교통과 상권,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올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과 국토교

통부·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7년 '중앙투자심사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교통·환승·주차시설을 우선 조성하고, 2단계에서는 상업·문화·숙박·컨벤션 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KTX 나주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환승 거점을 넘어 나주의 미래를 이끌 핵심 경제 허브로 조성할 것"이라며 "교통과 상권,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을 통해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나주가 서남권 대표 교통·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준환 기자



완도군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 '완도 전복' 판촉 행사를 열고 전복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산 전복 먹고 면역력 키우세요”

郡, 롯데백화점서 판촉행사

온라인 ‘완도청정마켓’ 판매

완도군이 한철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대표 보양식 '완도 전복' 알리기 나섰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 '완도 전복' 판촉 행사를 열고, 청정 바다에서 자란 프리미엄

전복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완도 전복은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고단백·저지방 식품으로,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슘, 칼륨, 단백질이 풍부해 '바다의 산삼'으로 불린다.

이번 행사는 전복 손질이 번거로워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구매 고객에게 껍질과 내장을 손질해주는 현장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 인증 고객에게 전복 1마리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홍보 효과를 높였다.

완도군 관계자는 "일교차가 큰 한절기에는 면역력 유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완도 전복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완도 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온·오프라인 판촉행사와 공동 마케팅을 통해 전복 소비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완도청정마켓'을 통해 신선한 전복과 해조류를 구입할 수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